

국어(한문 포함)

문 1. 한자어의 독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龜裂:균열
- ② 否運:불운
- ③ 嗚咽:오열
- ④ 拓本:탁본

문 2.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 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 ② 저희들에게 축복과 격려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③ 쓰레기는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 ④ 에너지 절약 및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주십시오.

문 3. 괄호 안에 해당되는 제목과 지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를 지어주소요.” (㉡)는 이내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왕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왕사(王師)로 봉하매 (㉢)는 두 번 절하고 군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는 이러하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스런 어머니시라.
백성을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은혜를 알리.
꾸물거리면서 사는 물생(物生)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
(후구)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는 태평하시리이다.

— ‘삼국유사’ 중에서 —

- | | |
|----------------|----------|
| ㉠ | ㉡ |
| ① 안민가(安民歌) | 충담사(忠談師) |
| ②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 | 충담사(忠談師) |
| ③ 제망매가(祭亡妹歌) | 월명사(月明師) |
| ④ 안민가(安民歌) | 월명사(月明師) |

문 4. 어문 규범에 모두 맞게 표기된 문장은?

- ① 여기 있는 딸기 통털어서 얼마예요?
- ②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 이젠 집에 갈께.
- ③ 그는 성대모사 하나로 내노라하는 인기인이 되었다.
- ④ 그렇게 글씨를 피발개발 써 놓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문 5. 밑줄 친 부분을 잘못 순화한 것은?

- ① 이번 호의 논문 심사결과표를 모든 이사분들께 우편물로 송달했습니다. (보냈습니다)
- ②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선거가 끝나고 모두 철회되었다. (취하)
- ③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부속기관들을 통폐합하려는 당국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순서를)
- ④ 이 건물 출입문에는 자동 시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잠금장치)

문 6. 다음 문장들의 연결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그래서 어떤 말이든 부지불식간에 그 언어를 지탱하는 문화의 틀을 따르게 된다.
- (나) 따라서 언어는 필연적으로 그 삶의 역사성, 지역성, 양식성, 창의성, 심미성 등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 (다) 문화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를 가리킨다.
- (라) 언어의 이러한 요소를 지배하는 것을 문화원리라 할 수 있다.
- (마) 인간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의 틀 속에서 성장하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된다.

- ① (다) - (가) - (라) - (나) - (마)
- ② (가) - (다) - (나) - (라) - (마)
- ③ (다) - (마) - (가) - (나) - (라)
- ④ (다) - (마) - (나) - (라) - (가)

문 7. 밑줄 친 부분들 중 비유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 바로 뒷집에는 늙어 쪼글쪼글해진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그 뒷집은 입구가 깎아지른 산 쪽으로 뚫려 있어서 하루 종일 햇볕 한 줍 들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토굴처럼 음습했고, 가까이 가면 곰팡이 냄새와 역한 오줌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역시 토굴처럼 음습했다. ㉡얼굴 주름살마다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이빨은 마치 들성들성 파먹은 옥수수처럼 엉성했다. ㉣하얀 머리카락은 늘 단정하게 쪽 지어 비녀까지 꽂았음에도 워낙 성기다 보니 털 빠진 모자를 쓴 것처럼 보였다.

— 위기철, ‘아홉살 인생’ 중에서 —

- ① ㉠
- ② ㉡
- ③ ㉢
- ④ ㉣

문 8.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것은 성가대에서 부르는 합창일 수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일일 수도 있고, 춤이나 카드놀이, 독서일 수도 있다. 혹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일을 좋아한다면 까다로운 외과 수술이나 피가 마르는 상담(商談)에 ()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또는 좋아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엄마가 아기와 놀 때처럼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순간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순간의 공통점은 의식이 경험으로 꼭 차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각각의 경험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일상생활에서는 좀처럼 그런 경험을 맛보기가 어렵지만 그 순간에는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순간을 나는 ‘() 경험’이라고 부르고 싶다. ‘()’은(는)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① 만족
- ② 무의식
- ③ 관조
- ④ 몰입

문 9. 조사가 바르게 사용된 문장은?

- ① 세계에서 맛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배만을 갈아 만듭니다.
- ② 신록의 계절에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 ③ ○○식품은 유기농 제품들로 작년 한 해 20여 개국에 수출 하였습니다.
- ④ 콩이 폐경 전 여성에서 유방암 발병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 10. 다음 중 시골 양반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에 어느 시골 양반이 한양 구경을 갔다. 하루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장으로 들어섰다. 마침 점심 때라 무척 배가 고팠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한 푼도 없었다.

жат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시골 양반은 жат 가게 앞에 서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가게 주인에게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주인장, 이것이 무엇이요?”

“옷이요.”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자 시골 양반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광주리에 담긴 жат을 가리키며 또 물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요?”

“жат이요.”

시골 양반은 배가 부를 때까지 정신없이 жат을 먹어댔다. 배가 부르자 시골 양반은 일어서서 자기 жат을 가리키며 물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요?”

“жат이요.”

그러자 시골 양반은 가게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럼 가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남의 жат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할 것 아니요?”

시골 양반은 웃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주인장, 나는 주인장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합니까? 그저 ‘오시오’ 해서 왔고, ‘자시오’ 해서 먹었고, ‘가시오’ 해서 간 것입니다.”

가게 주인은 곰곰 생각해 보니 시골 양반의 말도 그럴 듯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가게 주인은 시골 양반의 말재주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 ① “뜻은 다르지만 소리가 같은 말들을 재치 있게 사용했군.”
- ②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혼날 짓을 하네군.”
- ③ “농담으로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재주가 뛰어나군.”
- ④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자기 주장을 증명해 내네군.”

문 11.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은?

- ① 이파리, 딱다구리, 빠죽이
- ② 애크눈이, 오뚝이, 싸라기
- ③ 절뚝발이, 날라리, 지푸라기
- ④ 부스러기, 절름발이, 두드러기

문 12. 밑줄 친 외래어 가운데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결혼식 피로연 장소는 ○○뷰페 2층입니다.
- ② 신히여행은 지중해 근처의 터어키로 갈 예정입니다.
- ③ 요즘은 남자들도 파마를 많이 하는 편이다.
- ④ 시원한 밀크셰이크 한 잔 마시고 싶다.

문 13.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과거에 한 월간잡지가 여성 모델이 정치인과 사귄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기자도 손해배상을 하고 잡지는 폐간된 경우가 있었다. 일부는 추측 기사이고 일부는 사실도 있었지만, 사실이든 허위든 관계없이 남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였기에 그 책임을 진 것이다.

(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은 자기 인권을 내세워 남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통상 대중스타나 유명인들의 사생활은 일부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공개성 속에서 상품화되므로 비교적 보호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말은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 과거에는 인권을 말하면 불참혀 가고 감옥에도 가곤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인권을 스스로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권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과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호된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남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손해배상을 해 주면 그로써 충분하고, 자기 잘못을 사죄하는 광고를 신문에 강제로 실게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남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사죄 광고를 실게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가혹한 방법이라 하여 위헌으로 선고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나) - (가) - (다) - (라)
- ③ (다) - (나) - (가) - (라)
- ④ (다) - (나) - (라) - (가)

문 14. 한자성어와 속담이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 김칫국부터 마신다.
-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 제 눈에 물 대기

문 15. 문장의 구성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지만 돌이켜보니 지금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 ② 나는 노래를 못 불러서 과외를 받으러 다녔는데, 나에게 노래를 지도해 주신 분은 교회의 집사님이셨다.
- ③ 유족들의 이 같은 결정에는 추가 희생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 ④ 홍길동 감독은 선수 시절 풍부한 경험과 함께 충실한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다.

문 16. 표준 발음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 ① 넓죽하다[넬쭈카다]
- ② 얹지[압:찌]
- ③ 흘지[흔찌]
- ④ 맑고[말꼬]

문 1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한국은 매우 작고 아주 먼 나라이지만, 언어학자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다. 하나는 중국에서 발명된 인쇄술이 최초로 실질적으로 이용된 것이 13세기 한국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는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를 15세기에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 (중략) ……

한글은 의문의 여지없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점에서 그 유례가 없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발성 기관의 소리 내는 모습을 따라 체계적으로 창제된 과학적인 문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

— 최경봉 외,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

- ①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이다.
- ② 한국에서 13세기에 최초로 실질적으로 인쇄술이 이용되었다.
- ③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의 하나이다.
- ④ 한국은 작고 아주 먼 나라이지만 인쇄술이 최초로 발명된 나라이다.

문 18. 로마자 표기법에서 붙임표(-)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예: Se-un).
- ② 사람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예: Yong-ha).
- ③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붙임표(-)를 넣어 쓴다(예: Songni-san).
- ④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넣지만(예: Yangju-gun) ‘시, 군, 읍’의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예: Yangju).

문 19.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단어가 나타내는 뜻은?

모자가 강을 건너 노루목에 당도했을 때는 툭툭 쏘는 겨울 햇살이 질척하게 눈을 녹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 문순태, ‘타오르는 강’ —

- ①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들판
- ② 오솔길을 통하여 들어가는 동네
- ③ 노루를 기르는 목장이 있는 동네
- ④ 넓은 들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지역

문 20. 다음 글의 중심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역사학자와 교사 20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 위원회’(역사추진위)가 어제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초·중·고 역사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게 정부 공식기구인 역사추진위의 역할이다. 여기서 내놓는 방안이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새 역사 교육과정의 근간이 된다. 홀대받는 역사교육을 살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역사추진위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어제 공청회에선 한국사 필수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사회과목군에 포함돼 있는 역사를 독립과목으로 하거나 수능과 공직자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고교 교육과정 자체가 선택형인 데다 수능 탐구과목이 2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고교 3년 동안 한국사를 전혀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해 고교 역사교육을 고사(枯死)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건 교육 내용과 방법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추진위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을 바로 세워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긍심,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교육 방법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교실을 떠나 현장인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바로 역사교육이다. 역사교육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 역사추진위와 정부는 이번엔야말로 역사교육의 틀을 제대로 짜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 ②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의 집필 및 검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 ③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중요하다.
- ④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 교사,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